



# 우림 조경을 찾아서

옛날부터 대나무로 이름난 죽향의 고장  
전남 담양. “푸른대숲, 녹색침표”를  
주제로 대나무 축제가 한창인 담양군  
고서면에 자리한 우리 조경수협회 광주.  
전남서부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근형 대표의 우림조경을 찾았다.



이근형 (우림조경 대표)

글 | 사진 : 사진작가 김해웅



## 창평향교의 정원이 된 우림조경 고서농장

동서화합의 상징인 88고속도로의 광주 기점이며 호남고속도로  
가 만나는 고서 교차로가 있는 담양군 고서면 소재지인 교산리 교  
촌부락에 우림조경 고서농장이 자리하고 있다.

담양군청과 20여km나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광주광역시와는 2km도 안되는 인접지역이자 88고속도로의 호남 시발점  
으로 국도와 지방도가 사방으로 잘 발달되어 있으며, 농토가 넓고  
기름져 옛날부터 유명한 선비들과 가사문학이 태동하였고 일찍이  
홍선대원군이 전남에 교육으로는 광주·나주·장성·창평이 낫  
다고 칭찬한 그 창평향교가 자리한 야트막한 동산을 개간한 멋진  
조경수 농장으로 조성하여 농장에 올라서면 고서면 전체가 한눈

에 내려다보이는 명당자리인데다 고색창연한 한옥 기와지붕과 담장이 어울려진 조경수들은 마치 창평향교의 멋진 정원과 같은 풍경을 자아내는 우림조경의 대표 농장이다.

### 젊은 조경학도의 시련

그는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라는 나주호 상류 지역의 산골마을 농가에서 4남4녀 중 일곱째이며 아들로써는 막내로 1971년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꽃과 나무가 많은 산골에서 자랐기 때문인가 항상 조경수에 대한 꿈과 동경을 가지고 있어 1990년 나주시에 있는 동신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 입학하여 중간에 군복무까지 마치고 1996년에 졸업한 그는 1995년 졸업전 취업 실습으로 광주의 성암조경이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1개월 급여 대신 느티나무 묘목을 가져와 아버지와 형님의 도움으로 어렵게 마련한 골짜기 조그만한 밭에 심게 되었다.

쉬는 날 틈틈이 고향에 내려와 나무를 바라보며 큰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으나 그것도 잠시 경험없이 의욕만 앞서 다 죽고 아홉주만 살아 그때의 실망과 좌절감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었다 한다.

고향땅에 낫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수치심을 준 원인은 단순히 지주목을 설치하지 않아 바람에 흔들려 고사한 것으로 모든 시련을 젊음에서 온 경험부족이라는 것에 위안을 삼고, 그해 봄 다시 단풍나무를 구입 식재하고 직장이 조경회사라 설 틈이 없어 와보지 못하고 초여름 예비군 훈련 날에 틈을 내 밤늦게 찾아와 달빛 아래 파랗게 잎을 피운 나무들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때의 시련이 오늘의 그를 젊은 조경인으로 성장케 한 밑거름이 되었다.

### 아버지를 향한 못다 한 효도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조경회사에서 일하던 그대로 작업복에 트럭을 몰고 고향을 찾았다가 곱게 키운 막내 아들이 벡타이에 양복입은 사무직이 아닌 노동일을 하는 것을 보고 당장 그만두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을 보라고 진노 하시는 것을 조경업이 막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망한 사업으로 사무직보다 더 훌륭하게 성공할 테니 기대해 보시라고 설득하고 이후 온갖 심혈을 기울여 우림조경을 이



고서농장 진입로의 이근형대표



고서농장 자연성 소나무굴취목 묘지



창평향교와 고서농장 전경



옥과농장 느티나무 포지

룩하였지만 부친은 일찍 돌아가시고 지금도 그는 항상 부친 생각을 떠올리며 직접 보여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에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나무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못다 한 효도를 조경에 쏟고 있다.

### 연고없는 담양뜰에 조성된 농장

그의 고향은 광주시내의 서남쪽 나주시에서도 한창 떨어진 화순군 경계 지역이고 조경수와 관련된 직장도 광주지역이라 담양은 전혀 생소한 지역인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 농장을 조성하게 된것은 우연히 알게 된 관리인의 덕이란다.

산촌에서도 팽겨치고 묵혀 두었던 다락 논을 개간하여 조경수 재배에 성공을 거두면서 집안토지중 8,000평이나 되는 넓은 면적에 조경수를 심도록 배려해준 모친과 형제들의 지원에 힘입어 고향땅에 제대로 된 농장을 조성하려 했지만 워낙 산골인데다 특히 돌과 자갈이 많아 굴취와 이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결점이 있어 계획을 접고 조경회사에 일하시던 인부들에 부탁 적지를 물색한 것이 생활 근거지인 고향 나주시와는 정 반대로 멀리 떨어진 광주시 동쪽편의 담양군 고서면 소재지인 교산리 교촌 부락에 농장 부지를 소개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2005년 처음 1,000평을 임대하여 식재한 것이 직장생활에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풀밭으로 변한 농장



고서농장 메타세라리아 이식포지

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가 관리해주면 안되겠느냐는 전화연락을 받고 응한 후 나중에 가보니 그렇게 깨끗하고 알뜰하게 작업을 해준 것에 반해 계속 관리를 부탁하고 마땅한 농장 부지를 소개 받은 것이 창평향교 소유의 향교 뒷산으로 섬처럼 동그랗게 빠진 사방의 고서면 들녘이 한눈에 보이는 사과나무와 단감나무 과수원이 방치된 곳 25,000평을 임차하고 구입하여 도로를 내고 관수 파이프를 연결하여 불과 5년 만에 멋지고 실용적인 우림조경의 대표 농장으로 육성하였고 연이어 담양군 창평면에 15,000평 이웃한 순창군 금과면에 1,200평 곡성군 옥과면에 15,000평 이렇게 아무 연고 없던 담양지역에 농장을

조성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관리인을 잘 만난 덕이라고 모든 공을 돌린다.

### 5월의 꽃 이팝나무

그의 농장에는 유난히 이팝나무들이 많다.

어떻게 이팝나무들을 많이 재배 하냐고 물으니 이팝나무는 광주의 꽃이기에 수요가 많아 자연스럽게 재배하게 되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신록의 계절이네. 가정의 달이네 하며 가장 상큼하고 싱그러운 계절을 맞아 모두들 즐거워 하지만 광주에는 5.18이라는 또 다른 역사가 있고 아직도 그날의 슬픔과 눈물, 그리고 정신적 상처(트라우마)를 안고 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무엇보다 광주 5.18 국립묘지의 진입로 가로수로 심겨진 이팝나무는 해마다 이날이 되면 하얀 꽃잎으로 뒤 덮여 보는 이들의 시린 가슴을 몽클하게 하였기에 어느새 광주 지역에서는 5월의 상징 꽃으로 불린다.

실제 광주광역시외의 시화는 철쭉. 시목은 은행나무지만 이팝나무를 더 사랑하고 선호하게 되어 자연 수요가 많아서 그의 농장에는 여기저기 크고 작은 이팝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고 그 덕에 LH 공사 같은 대형회사에 납품도 하고 공사 수주도 받았단다.

### 단기 회전식 농장경영

우리조경의 농장에는 고급수종이나 휘귀수종 또는 오래된 고목이나 커다란 대형 조경수들이 없다. 2005년부터 시작하여 이제 6년 밖에 안 되었으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의 경영 철학이 최대한 속성 재배하여 빨리 출하하고 다시금 식재하는 단기 회전 방식을 택하였다.

오래된 농장들을 보면 대형 조경수나 고목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단다. 오히려 대형목으로 장기간에 키워 판매하는 것이 단위 면적당 수확이나 총수익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아직 경험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면이 있고 또한 농장마다 역사와 추억이 있는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나무들과 멋진 정원을 꾸미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것을 그는 그저 한 치의 땅이라도 놀리지 않고 계속 재배하고 출하하는 단기 회전 방식을 추구한다.



배롱나무와 메타세콰이아 포지



고서농장 이팝나무 포지

우선 묘목을 구입하면 약간 밀식하여 수고 생장을 빠르게 한 후 다시금 정식하는 방법으로 조기 생장을 유도 출하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려니 자연 농장에는 가장 대중적인 수종인 이팝나무 · 느티나무 · 메타세콰이아 · 단풍나무 · 배롱나무 · 소나무 등의 10년생 미만의 어린조경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 담양 대나무와 메타세콰이아

담양은 옛날부터 대나무 고을이다.

멀리 고려시대부터 음력 5월 13일을 대나무 심는 죽취일로 정해 전 주민이 모여 대나무를 심고 음주와 친목을 다지는 행사를 하던 것이 일제 강점기인 1920년도에 맥이 끊겼던 것을 1999년도에 다시 부



옥과농장 메타세콰이아 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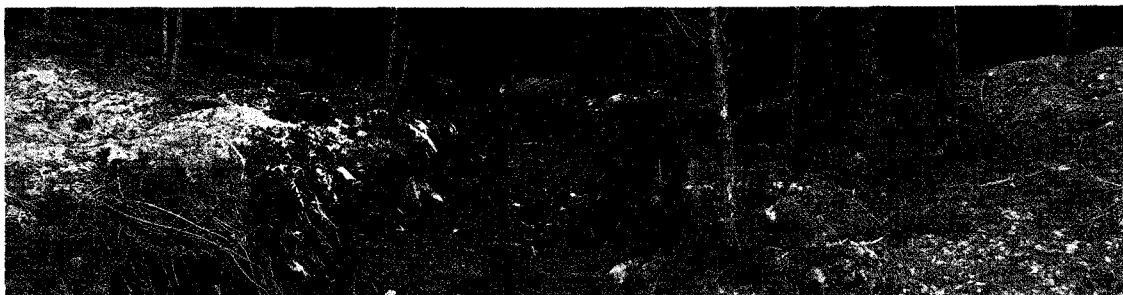
할 금년 13회를 맞는 축제가 마침 농장을 방문하던 날 한창 열리고 있어 온 고을이 사람과 차량으로 뒤덮여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이지만 실상은 플라스틱 제품에 밀려 대나무의 명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대신 메타세콰이아 가로수 길이 유명해지면서 담양을 대표하는 수종으로 더 알려 지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숲”으로 2002년 산림청에서 선정된 담양의 가로수 길은 20m가 넘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8.5km나 되는 긴 터널을 이루며 원근과 피침의 조화가 어울려져 계절마다 새로운 풍광을 자아내므로 이제는 길을 가기위해 지나가며 보는 것이 아니라 메타세콰이아를 보려고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 중에 명소가 되었으며 더구나 그 가로수들이 1970년대 초 우리 조경인에 의해 개발 보급되어 조성된 것으로 이후 전국적으로 인기 수종이 되었고 그 덕분인가 지금도 수요가 많아 우림 조경의 농장마다 메타세콰이아가 대량으로 줄지어 자라고 있다.

### 조경으로 얻은 행운들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교도 직업도 조경을 택한 것이란다.

첫째 행운은 조경 덕분에 최고의 반려자를 만난 것으로 직장 생활 중 조경수를 납품하면서 다른 조경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전남대학 조경학과를 나온부인(최현아)을 만나 2001년에 결혼을 하고 지금 2남1녀의 자녀를 둔 것이 가장 큰 행운으로 오늘의 우림조경이 있기까지 제반 지원은 물론 현재도 사무실에 나와 모든 행정업무와 안살림을 책임지는 최고의 일등 공신을 얻었으며 2005년 두 내외가 직장 생활을 접고 본격적인 조경 사업에 뛰어들어 2006년도에 타인과 동업으로 대흥종합조경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2009년 단독으로 지금의 우림종합조경을 설립 당당한 조경회사를 갖게 되었으며, 두 번째는 2005년에 우리 조경수협회에 가입하여 젊은 나이지만 협회를 위하는 성실성과 적극성이 인정되어 2009년부터 광주·전남서부지회 사무국장을 맡아 젊음과 열정으로 지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이제는 어디를 가나 우림조경 대표보다



지회 사무국장으로서 소개된 덕분에 젊은 나이지만 지역사회 어디를 가나 신망 받는 조경인으로 널리 알려져 금년 봄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4대강 살리기 자문위원”에 위촉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이 모든 것이 조경이 가져다준 행운이라고 조경예찬론을 편다.

### 담양의 정자와 가사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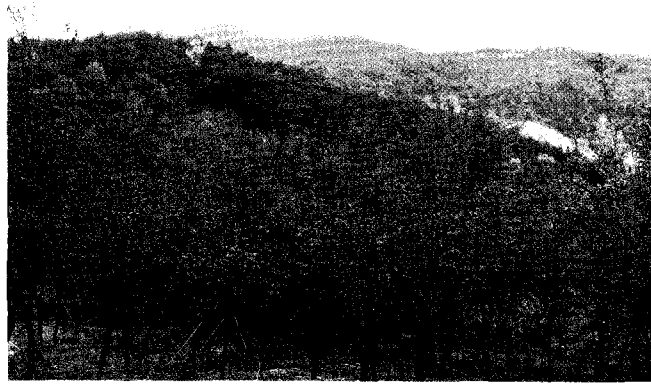
담양군은 예전에는 담양과 창평군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행정구역 개편시 담양군으로 통합된 것으로 옛 부터 담양·창평·광주고을은 맑은 냇물과 무등산 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백리형국의 기름진 옥토로 식량과 풍광이 수려하여 양반 권세가의 부호들이 많아 이들이 당쟁과 사회를 겪으면서 낙향하거나 은신하기 최적 지역으로 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어 면양정·식영정·송강정·명옥헌·소쇄원등 정자와 누각 그리고 원림(園林)을 지어 놓고 당대의 지식인들이 시국담론과 문화 활동으로 특히 가사문학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국문학을 탄생시킨 고장으로 이서의 낙지가·송순의 면양정가·정철의 사미인곡·속미인곡·성산별곡 등 주옥같은 시문학들을 이곳에서 집필해낸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산실들이 모두 이곳 우림조경 고서 농장 인근에 분포해 있어 항상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문화고을의 한복판에 우림조경 농장들이 자리하고 있어 이곳 또한 외지인의 발길이 빈번하다.

### 앞서가는 선진 조경 경영

그는 이제 조경회사를 직접 경영한지 7년차이다. 그런데도 누구보다 빠른 성장을 했다. 젊은 열기에 다 두 내외가 다같이 조경학을 전공하고 다년간 조경회사에 근무한 경험과 학식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장래 수요 예측과 과학적인 영농을 구사하고 특히 조경 공사에 있어서는 현대적 감각에 맞는 세련된 디자인과 정밀한 설계로 품질 좋은 조경수를 성실히 시공하여 많은 이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얻어 광주광역시 지역의 크고 작은 관급공사를 계속 수주할 수 있었고 2010년에는 LH 공사의 아파트 조경까지 시행 하므로 이제는 연간 2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직원 10명을 둔 조경회사로 도약 하였



옥과농장 오엽송 포지와 이근형대표



옥과농장 자엽사두 포지

고 현재 30ha에 40여 수종을 저농약 유기농으로 양질의 조경수만을 생산하고 조경기술 개발. 보급은 물론 조경인과의 친목도모와 조경업 발전에 앞장선 공로로 2011년 농림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은 우수 조경인이다.

처음 시작 할 때 의욕만 앞세워 멀리 완도 섬지역과 전남 무안 지역까지 이곳저곳에 조성한 농장들을 정리하고 담양 고서 농장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지역 특유의 정자와 원림이 있고 가사문학이 태어난 역사적 고장의 한축을 담당하는 사명감으로 창평향교를 찾는 많은 학생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학습의 장을 열어 자연과 조경을 알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관광 휴식의 공간으로 가꾸려는 소박한 꿈을 꾸는 젊은 조경가족이다. 🌿